

尹 체포영장 다시 발부... 공조본, 이번엔 체포할까

법원, 집행기간 7일보다 길 것
한남동 관저 요새화에 충돌 우려
공수처장 "정당한 집행 방해 안돼"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관련기사 3·4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공조수사본부(공수본)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25시간여 만에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통상기간(7일)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 대기 상황 등이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해서다.

공수처는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협의를 기간을 더 길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재발부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관저 앞에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까지 새롭게 설치하는 등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사실상 요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의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점을 봤을 때 또 다시 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조본은 2차 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지원이 막아설 경우 현행법 체포 등도 검토하고 있어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조본은 1차 영장 집행이 불발됐던 만큼 다양한 체포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이번에는 체포할 수 있을 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집행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경호처가 막아서자 5시간 30여분 동안 대기하다 철수했다.

영장 집행이 여의치 않자 공수처는 지난 5일 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영장 집행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혀 영장집행 유효기간(6일)이 만료됐다.

결국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례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조본은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집행 착수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명령장으로 인식된다"며 "명령을 집행하는 것은 검사의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인근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걷고 있다. 9일까지 호남 지역에는 20cm 가량의 폭설이 예보돼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9일까지 20cm 폭설... 영하 9도 강추위

오는 9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매서운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사·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7면〉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전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리겠다. 또 8일 오후부터 9일까지 시간당 3~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간

예상 적설량은 5~15cm로, 광주와 전남 북부에는 20cm 이상 쌓이는 곳이 있겠다.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동장군도 맹위를 떨치겠다.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3도,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9~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시도 '대설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 재난대책회의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및 5개 자치구 합동으로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특히 폭설과 함께 강추위까지 예보됨에 따라 한랭 질환자 취약계층을 점검하고,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는 요령 등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큰 눈에 대비해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하는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참여 등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안전하지 못한 광주 어린이보호구역 ▶6면



숨겨진 매력 유럽 소도시 기행 - 독일 '본'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주항공 참사 '버드 스트라이크' 있었다

국토부, 엔진에서 새 깃털 확인
음성기록장치 녹취록 공개될 듯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있었다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고 비행기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녹취록 일부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고조사단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

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결과들) 봐야 한다"면서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해당 여객기 조종사와 관제탑간 교신 내용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수차례 언급됐지만,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국토부는 깃털이 어떤 조류의 것인지 규명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규명 작업의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인 CVR 녹취록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CVR 녹취록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조사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사조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CVR 녹취록 공개는 사고 전후 사고기 내의 음성 내용과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 담겨 있어 개략적인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CVR에 담긴 내용은 지난 4일 녹취록으로 작성 완료됐으며, 사고기 블랙박스 중 연결장치가 일부 유실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NTSB로 전달됐다.

박 장관은 이어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조사를 이어가겠다"며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있던 항철위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조사 등 항철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물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

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지적받고 있는 로컬라이저는 2007년 개항 당시 높이 1.8m·폭 0.26m·너비 3m의 콘크리트 기초 19개를 사용한 둔덕 위에 설치된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콘크리트 기초를 0.3m 깎아내는 대신 그 위에 두께 0.3m·폭 42m·너비 3.4m의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했고, 콘크리트 기초와 상판 사이를 흙으로 채운 한 국공항공사의 개량 사업이 진행됐다. 인·허가는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이 맡았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의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국내의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시기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임동 중교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